



#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3호 / 2026년 10월 08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 90%

### -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조정중지'로 파업권 확보!

어제 각 지회별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인원 대비 90%의 찬성으로 임단협 투쟁 승리의 결의를 확인했다. 이번 결과는 두달이 넘도록 제자리인 교섭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현장의 선택이었고 조합원의 명령이었다.

### - 202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 결과 -

| 재적인원   | 투표인원 | 찬성   | 반대  | 무효 | 투표인원 대비 찬성률 | 결과 |
|--------|------|------|-----|----|-------------|----|
| 1,051명 | 933명 | 840명 | 90명 | 3명 | 90.03%      | 가결 |

올해 임단협이 13차까지 진행되었고 두달을 넘겼지만 그동안 사측은 “검토하지 않았다” “안이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지난 9/15일 내놓은 제시안은 기본급과 일시금이 전부였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회사의 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지 않는가,

### ■ 사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어제(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조정중지' 가 내려졌다.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중노위 위원들도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노위 위원들은 사측도 달라진 노조의 위상에 맞춰 교섭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조를 더 이상 막다른 길로 몰지 않도록 회사가 성의를 보여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 □ 찬성률 90%의 의미, 이제는 사측이 답을 할 차례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이 보여 준 결의는 압도적이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교섭위원 몇 명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회사의 성장 만큼 성과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에 사측이 답을 할 차례다.

# 이제는 쟁의 국면, 쟁의권 확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중노위의 조정중지와 더불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를 확인했다. 이로써 만도지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제 본격적인 쟁의국면이다.

만도지부가 바라는 것은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타결이다. 결코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안 없는 교섭, 시간 끌기 교섭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로 지부운영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며, 쟁의 일정과 방침을 결정해 공지할 것이다.

사측이 성의 있는 안을 내놓는다면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 사측 또한 90.03%의 찬성을 싸우자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는 조합원 모두의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 비상운영으로 조합원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파업과 생산 차질 걱정으로 지원자 모집을 하는 것보다, 교섭 석상에 앉는 것이 순서다. 10/6일 사측은 ‘생산 유지를 위한 비상운영 실시’ 공고를 냈다. 교섭은 두달째 제자리인데, 파업 대비만 빠르다. 대화는 미루고 대결만 준비하는 것이, 그동안 회사가 말하는 노사관계였는지 묻고 싶다.

공고 내용도 문제였다. 대상을 전직원으로 했다가 ‘임직원(기능직 계장 이하 제외)으로 수정했다. 노조는 공고의 경위와 범위를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다. 사측이 공고를 게시했을 때는 중노위의 조정중지도 없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파업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찬반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노조활동 지배 개입의 문제였다.

## □ 집행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집행부는 이번 찬반투표의 결과인 90.03%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모든 진행 상황과 결정은 조합원에게 숨김없이 알리겠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줄어들지 않는 일자리, 노동자가 죽지 않는 현장을 위해 만도지부는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도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노조 지침에 따라 주기를 당부한다.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의 승리를 확신한다.